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관계

Relationships among Volunteer Activiti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박필남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Pil-Nam Park(pnpark@pohang.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일 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에 대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가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 중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71.8%였다. 전체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84점이며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7점으로 나타나 각각 중간수준을 상회하였다. 봉사활동 태도, 감성지능,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태도와 감성지능 ($r=0.329$), 봉사활동태도와 전공만족도($r=0.271$),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r=0.525$)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감성지능 등이 있으며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41.6%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생활만족도, 감성지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심어 : | 봉사활동 | 감성지능 | 전공만족도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activiti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to investigate 252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 univers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dummy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71.8%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d volunteer activities. The average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all participants was 4.84 points out of 7, and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was 3.87 points out of 5 points, each of them was above middle level. The correlations among the attitude of volunteer ac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ttitude of volunteer activ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r=0.329$), the attitude of volunteer activity and major satisfaction ($r=0.271$),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r=0.525$)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1. There were grad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as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41.6%. In order to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strategies are needed to improv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 keyword : | Volunteer Activities | Emotional Intelligence | Major Satisfaction | Nursing Students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는 대학을 진학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 보다 취업률이나 성적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1][2]. 적성과 흥미보다 취업이 잘 되거나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아지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며 직업의식도 높게 나타난다. 최근 간호학과는 높은 취업률로 인해 전공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타 학과와 달리 간호학과는 저학년부터 해부학, 생리학, 기본간호학 및 실습 등의 전공기초과목을 배우게 되어 용어가 생소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과적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1].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간호학생은 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4]. 간호사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줄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성적 지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학생은 졸업후 입장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간호사의 질적 역량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4].

최근 일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감성지능 향상과 봉사활동이 영향변수로 대두되고 있다[5][6].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의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합하게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게 되므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7][8]. 감성지능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며 감성지능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고 감성지능 향상을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9]. 미래의 간

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에게 감성지능은 배양되어야 할 필요한 자질이다.

봉사활동 특히 전공관련 봉사활동은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친다[10]. 봉사활동 경험은 직업에 대한 선행경험과 함께 자신이 배운 지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해보면서 전공과 추후 직업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5]. 봉사활동은 교과활동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 및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게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 등을 배울 수 있어서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있다[11]. 특히 전공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대학시기의 봉사활동은 전공만족도에 기여한다[6].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지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은 사회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훈련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12]. 따라서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성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특히 전공관련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간 및 간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간호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13].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 관하여 [8]의 연구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6][14]는 봉사활동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감성지능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혹은 봉사활동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감성지능, 봉사활동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전공만족 향상을 위한 방안 및 중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및 전공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봉사활동, 전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및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과 감성지능 및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A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강의시간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에게 설문지와 함께 동의서를 배포한 후 응답즉시 회수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는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배포된 259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응답을 한 부분이 많은 7부를 제외하고 252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1-β) 95%로 하여 Power Analysis를 했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78 이상 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 252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도구

3.1 봉사활동 특성

봉사활동 특성은 [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봉사활동 참여여부, 봉사동기 봉사기간, 전공관련성, 봉사장소, 봉사시기, 봉사활동 참여도, 직업선택의 영향, 봉사활동 필요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감성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인 성향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7], 본 연구에서는 [15]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16]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평가(self emotion appraisal) 4문항, 타인의 감정에 대한 평가(other's emotion appraisal) 4문항, 감정의 사용(use of emotion) 4문항, 감정의 조절(regulation of emotion)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총점은 16점부터 11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만족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 조사를 토대로 [17]이 작성한 34개 학과만족도 구 중 [18]이 전공만족관련 18문항을 선택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관계만족 3문항의 18문항으로 하고,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점은 18점에서 9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전공만족도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Tukey HSD test로 분석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종교, 경제상태, 학비부담, 학교생활 만족정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252명 중 남학생 33명(13.1%), 여학생 219명(86.9%)이었다. 1학년 27.8%, 2학년 27.8%, 3학년 31.0%, 4학년 13.5%였으며,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42.1%, 없는 대상자가 57.9%였다.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63.5%로 가장 많았다. 학비제공은 '부모님'의 경우가 60.7%, '기타'(학자금 대출 및 외부 도움 등)의 경우가 22.6% 순으로 많았다. 대학생활 만족정도는 '만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31.0%, '보통' 47.2%, '불만족' 21.8%로 '보통'이라고 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52)		
특성	구분	n(%)
성별	남학생	33(13.1)
	여학생	219(86.9)
학년	1학년	70(27.8)
	2학년	70(27.8)
	3학년	78(31.0)
	4학년	34(13.5)
종교	있음	106(42.1)
	없음	146(57.9)
경제상태	상	4(1.6)
	중	160(63.5)
	하	88(34.9)
학비제공	부모님	153(60.7)
	스스로 알아서	42(16.7)
	기타	57(22.6)
대학생활 만족	만족	78(31.0)
	보통	119(47.2)
	불만족	55(21.8)

2. 봉사활동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봉사활동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252명 중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1명, 없는 경우는 71명으로 71.8%가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봉사활동 경험이 직업선택에 영향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는 60.3%로 '보통', '없음'보다 많았다. 봉사활동 필요성은 '있다'고 답한 대상자가 72.2%로 대부분의 대상자는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봉사활동경험이 있는 181명 가운데 봉사에 참여한 시간은 '30시간 초과 60시간 이하'가 50.3%로 가장 많았고 '90시간 초과'한 대상자도 9.4%를 나타냈다. 전체 봉사참여 활동 중 전공관련 봉사활동이 80.1%, 전공과 관련이 없는 봉사활동이 19.5%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학점이나 취업을 위해서' 62.4%로 가장 많았고, '나의 성장발전을 위해서' 16.0%, '남을 돕기 위해서' 12.2%,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7.7%, '다른 사람의 제안 때문에' 1.7%를 나타냈다. 봉사장소는 '노인복지시설'이 50.8%로 가장 많았고 '병원, 보건소' 26.0%, '장애인 시설' 6.6%, '지역아동센터' 6.1%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참여시기는 '주말' 42.0%, '방학' 30.4%, '평일' 27.6%를 나타내어 주말에 봉사활동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봉사활동태도는 '적극적'이었다고 답한 대상자

가 75.7%, ‘보통’ 16.6%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7.7%를 나타내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봉사활동 특성

특성		구분	n(%)
(N=252)	봉사활동 경험	있음	181(71.8)
		없음	71(28.2)
	봉사활동 경험이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있음	152(60.3)
		보통	67(26.6)
	봉사활동 필요성	있음	182(72.2)
		보통	49(19.4)
	없음	21(8.3)	
봉사시간	30시간 이하	48(26.5)	
	30시간 ~ 60시간	91(50.3)	
	60시간 ~ 90시간	25(13.8)	
	90시간 초과	17(9.4)	
전공관련 봉사	있음	145(80.1)	
	없음	36(19.9)	
참여동기	남을 돕기 위해서	22(12.2)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29(16.0)	
	학점이나 취업을 위해서	113(62.4)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14(7.7)	
	다른 사람의 제안 때문에	3(1.7)	
봉사장소	고아원	2(1.1)	
	장애인 시설	12(6.6)	
	노인복지 시설	92(50.8)	
	병원, 보건소	47(26.0)	
	지역아동센터	11(6.1)	
	기타	17(9.4)	
참여시기	평일	50(27.6)	
	주말	76(42.0)	
	방학	55(30.4)	
봉사활동태도	적극적	137(75.7)	
	보통	30(16.6)	
	소극적	14(7.7)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전공만족도의 정도는 [표 3]과 같다.

전체 감성지능 평균점수는 4.84±0.76, 전공만족도는 평균 3.87±0.57점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학년(t=4.70, p<0.001), 학비제공(F=3.67, p<0.05), 대학생활 만족도(F=8.8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학년에 있어서 ‘3학년’이 ‘1학년’이나 ‘2학년’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학비제공에 있어서는 ‘스스로’ 학비제공하는 대상자가 ‘기타’ 학비제공 하는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대상자가 ‘보통’이나 ‘불만족’하는 대상자 보다 감성지능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성별(t=2.25, p<0.05), 학년(F=2.87, p<0.05), 대학생활 만족도(F=26.1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학년에는 3학년이 2학년보다 전공 만족도가 높았고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대상자가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보통’, ‘불만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봉사활동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N=252)			
특성	구분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M±SD	t/F Tukey HSD	M±SD	t/F Tukey HSD
	전체	4.84±0.76		3.87±0.57	
성별	남	4.92±0.73	0.67	4.08±0.46	2.25*
	여	4.83±0.77		3.83±0.58	
학년	1학년a	4.74±0.73	4.70** c)a,b	3.85±0.54	2.87* c)b
	2학년b	4.67±0.84		3.77±0.62	
	3학년c	5.10±0.67		4.02±0.57	
	4학년d	4.81±0.74		3.76±0.51	
종교	있음	4.92±0.74	1.47	3.93±0.57	1.56
	없음	4.78±0.78		3.82±0.58	
경제상태	상	5.51±0.45	2.29	4.22±0.87	0.80
	중	4.87±0.75		3.85±0.58	
	하	4.75±0.78		3.88±0.54	
학비제공	부모님a	4.88±0.72	3.67* b)c	3.84±0.56	1.15
	스스로b	5.00±0.71		3.99±0.57	
	기타c	4.61±0.87		3.85±0.62	
대학생활만족도	만족a	5.13±0.61	8.85** a)b,c	4.19±0.44	26.1** a)b)c
	보통b	4.75±0.72		3.80±0.47	
	불만족c	4.64±0.92		3.54±0.71	

*p(0.05), **p(0.01)

4. 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전공만족도는 [표 4]와 같다.

표 4.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특성	구분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M±SD	t/F Tukey HSD	M±SD	t/F Tukey HSD	
(N=252)	전체	4.84±0.76		3.87±0.57		
	봉사활동 경험	있음	4.91±0.76	2.40*	3.91±0.53	2.09*
		없음	4.66±0.73		3.74±0.66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있음	4.84±0.72	0.93	3.91±0.47	1.78
		보통	4.91±0.74		3.85±0.66	
	봉사활동 필요성	있음a	4.93±0.69	4.69* a)b	3.92±0.50	3.34*
		보통b	4.64±0.77		3.74±0.62	
		없음c	4.54±1.17		3.67±0.94	
	시간	전체	4.91±0.76		3.91±0.53	
		30시간 이하	4.76±0.90	1.56	3.84±0.69	0.45
30시간 ~ 60시간		4.93±0.72	3.94±0.44			
60시간 ~ 90시간		5.17±0.69	3.92±0.48			
90시간 초과		4.89±0.64	3.98±0.57			
전공 관련	있음	4.96±0.71	1.54	3.94±0.49	1.48	
	없음	4.74±0.95		3.79±0.68		
(N=181)	참여 동기	남을 돕기 위해서	5.18±0.63	1.12	3.90±0.53	0.25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5.02±0.80		3.99±0.33	
		학점이나 취업을 위해서	4.85±0.80		3.89±0.59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4.80±0.56		3.92±0.51	
		다른 사람의 제안 때문에	4.68±0.82		4.09±0.22	
봉사 장소	고아원	4.81±0.79	0.86	4.25±0.27	1.59	
	장애인 시설	4.64±0.72		3.78±0.53		
	노인복지시설	4.90±0.68		3.93±0.45		
	병원, 보건소	4.98±0.92		3.92±0.70		
	지역아동센터	4.68±0.64		3.57±0.39		
참여 시기	기타	5.13±0.82	1.96	4.08±0.46	2.28	
	평일	4.73±0.92		3.80±0.67		
	주말	4.99±0.72		4.00±0.47		
봉사 활동 태도	방학	4.97±0.65	9.55** a)b)c	3.90±0.47	6.77** a)b)c	
	적극적a	5.04±0.67		3.99±0.47		
	보통b	4.66±0.71		3.66±0.47		
	소극적c	4.25±1.18		3.66±0.91		

* $(p<0.05)$, ** $(p<0.01)$

감성지능은 봉사활동 경험 유·무($t=2.40, p<0.05$), 봉사필요성($F=4.69, p<0.05$), 봉사활동태도($F=9.5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봉사활동 경험 유·무($t=2.09, p<0.05$), 봉사필요성($F=3.34, p<0.05$), 봉사활동태도($F=6.7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봉사활동 필요성에서는 필요성이 '있음'

이라고 한 대상자가 '보통'이라고 대답한 대상자보다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봉사활동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감성지능,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소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대답한 대상자 순으로 감성지능,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 봉사활동 태도, 감성지능, 전공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봉사활동태도,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고 이들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봉사활동태도와 감성지능($r=0.329$), 봉사활동태도와 전공만족도($r=0.271$),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r=0.525$)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표 5. 봉사활동태도,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관계

변수	봉사활동 태도	감성지능 평균	전공만족도평균
봉사활동 태도	1		
감성지능 평균	0.329**	1	
전공만족도평균	0.271**	0.525**	1

* $(p<0.05)$, ** $(p<0.01)$

6.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별, 학년, 대학생생활만족도와 봉사활동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봉사활동 필요성, 봉사활동태도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을 감성지능과 함께 독립변수로 하고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더미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때 Durbin-Watson통계량은 1.810으로 오차항간의 자기상관성이 없으며 독립변수들의 VIF가 모두 3.3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2.6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1.6%였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대학생생활만족도, 감성지능

등이 있으며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만족도가 0.19만큼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과 4학년은 2학년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학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보통'이 '불만족'에 비하여 0.17, '만족'이 0.43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B=0.26)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표 6.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B	SE	β	t
(상수)	2.18	0.22		9.62**
성별(남)	0.15	0.10	0.09	1.51
학년(1)	-0.02	0.19	-0.00	-0.09
학년(3)	0.19	0.07	0.18	2.69**
학년(4)	0.10	0.09	0.07	1.14
대학생활만족도(보통)	0.17	0.08	0.16	2.10*
대학생활만족도(만족)	0.43	0.09	0.38	4.85**
봉사활동필요성(보통)	-0.04	0.12	-0.03	-0.03
봉사활동필요성(있음)	-0.08	0.11	-0.07	-0.72
봉사활동태도(보통)	-0.02	0.13	-0.01	-0.15
봉사활동태도(적극적)	0.23	0.13	0.18	1.79
감성지능	0.26	0.47	0.37	5.56**

R2=0.452 Adj R2=0.416 F=12.66**

* (p<0.05), **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학과 입학 후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은 71.8%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14]에서 34.8%, [19]에서 60.8%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선택 혹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적응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연구대상자들이 속한 대학에서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입학 후 아직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한 2~4학년의 경우는 대부분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학년을 포함하는 전체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84점으로 중간을 상회하

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7점 만점에 5.0점[20], 5점 만점에 3.85점[21], 112점 만점에 80.20점[7], 7점 만점에 5.10점[22]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의 결과인 7점 만점에 4.7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감성지능 점수는 평균 4.91점으로 나타났는데 봉사활동을 경험한 학생이 봉사활동 등 교과 외 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7][22]의 결과에서도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감성지능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성지능은 봉사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지는 결과이다. 더구나 봉사활동은 본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장소, 대상, 상황을 선택할 수 있어서 봉사활동을 통하여 교과활동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 및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은 봉사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하여 향후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r=0.525$). 이는 선행연구[8][7]에서도 감성지능정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7점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5점 만점에 3.76점[8], 3.61점[24][25], 3.56점[26], 3.64점[5], 3.64점[27], 3.54점[28], 3.35점[13], 3.89점[3], 3.46점[1]을 나타내어 중간이 넘게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는 실업률 (2017년 11%)과 타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한 점 등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봉사활동 경험을 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3.91점으로 나타나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보

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봉사활동 경험 대상자가 비경험대상자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 선행연구 [10]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 태도와,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간에는 순상관 관계가 있어서 봉사활동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감성지능이 높아지고,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성지능과 전공만족도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8]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봉사활동과 전공만족도간의 관계는 봉사활동 특성 중 봉사활동태도와 전공만족도간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봉사활동 만족이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6][14] 결과와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과 봉사활동 특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성별, 학년, 학비제공, 대학생활 만족도, 봉사활동 경험유무, 봉사활동 필요성, 봉사활동 태도 등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감성지능과 함께 종속변수로 하고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년, 대학생활만족도 그리고 감성지능이 영향요인으로 나왔다. 일반적인 특성 중 학년은 선행연구 [14]에서 저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한 것과는 다르고, [6]의 연구에서 고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 높다고 한 결과와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아직 대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저학년이나 국가고시, 취업 등을 준비해야 하는 4학년보다 3학년은 어느 정도 학교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1][14]와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봉사활동 특성들은 더미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표 4]와 같이 봉사활동태도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사후검정 결과 차이가 확인되어 봉사활동 태도를 독립변수로,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봉사활동태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설명력은 7.4%로 낮은 편이었다.

이로서 대상자에게 봉사활동 종류를 다양화하고 대상범위를 넓히며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 좀 더 다양화하여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 되었다.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감성지능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사활동은 대상자의 봉사활동특성 중에서 봉사활동 태도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설명력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문학 교과과정의 적용과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문화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비교과과정 적용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봉사활동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제시도 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남문희, 김혜옥,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관계,”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4권, 제1호, pp.263-273, 2016.
- [2] 오지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873-884, 2014.

- [3] 장태정,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4] 권영미, 윤은자,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3권, 제3호, pp.85-192, 2007.
- [5] 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 pp.376-384, 2011.
- [6] 권영미, 주혜주, 조경미,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특성에 따른 욕구충족, 사회성, 전공만족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20-32, 2004.
- [7] 이광옥, 채현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4권, 제10호, pp.355-365, 2016.
- [8] 김영순, 오은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103-110, 2016.
- [9] 양선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기 효능감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370-378, 2015.
- [10] 신미아, 안권숙, “치위생학, 간호학 전공 학생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직업존중감 조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제12권, 제6호, pp.1090-1100, 2012.
- [11] 신근화, 옥수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학교사회복지학회지*, Vol.1, No.29, pp.177-203, 2014.
- [12] 고명숙, 김태숙, 민순외, *간호학개론*, 수문사, 2011.
- [13] 손봉희, 권영미, 전인경,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 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20권, 제3호, pp.240-249, 2011.
- [14] 신미아,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1024-1035, 2013.
- [15] C. S. Wong and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pp.243-274, 2002.
- [16] 정현우, *조직구성원의 감성지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17] 김계현,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7-20, 2000.
- [18] 이동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성정체감, 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9] 이혜숙,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9권, 제2호, pp.276-287, 2003.
- [20] 고정미, “일개 간호대학교 학생의 감성지능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학 교보건학회지*, 제28권, 제3호, pp.239-247, 2015.
- [21] 김미숙,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2권, 제4호, pp.504-513, 2016.
- [22] 송주은, 채현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4호, pp.502-512, 2014.
- [23] 하주영, 전소영,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지능 및 의사소통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2권, 제3호, pp.264-273, 2016.
- [24] 조인영,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937-2945, 2014.
- [25]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3-91, 2012.
- [26]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pp.27-36, 2014.
- [27] 김덕진, 이정섭,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

기호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44-254, 2014.

- [28] 고정은, 김미희, 김은진, 김혜지, 엄지은, 이행아, 장누리, 장동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이화간호학회지, 제45호, pp.29-44, 2010.

저 자 소 개

박 필 남(Pil-Nam Park)

정회원



- 1998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05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0년 3월 ~ 2013년 8월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부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봉사활동, 흡연, 건강증진, 학교보건